

67호, 2007,6-7

책을 열며 / 6.15 방북 소감 비본질을 넘어 본질을 살자 - 6.15 통일대축전 방북후기 / 김창환

특집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 강정구
연속기획 _ 한미동맹 고리를 끊자! / 작전권과 유엔사 작전통제권 환수, 도루묵되나? / 박석분

연속기획 _ 한미동맹 고리를 끊자! / 미군 쓰레기탄약(WRSA : 와사) 미군 쓰레기탄약도 한국이 처리? / 박석분

이달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 김병균 목사 / 정동석

강연회 지상중계 / 민점기 선생 강의 - 광양항 미군기지 이전 저지 투쟁 사례 / 최경순, 유한경

지역 / 서울평통사 71년 돼지띠 동갑내기 백차현·박희정 부부 이야기 / 김슬기

지역 / 부천평통사 더함분회 첫 번째 기행 나눔의 집 방문 / 부천평통사

해외평화운동 / 일본 진보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산리쓰카 투쟁 / 유정섭

비본질을 넘어 본질을 살자

- 6.15행사 방북 후기 -

안동평통사 대표 김창환

사물에는 본질적 속성과 우유적(偶有的) 속성이 있다. 전자는 사물의 근본적인 성질이고, 후자는 주변적 부분적인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둘을 편의상 본질과 비본질로 바꾸어 부르기로 하자.

이 명제는 민족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민족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며 살기도 하고, 본질보다 비본질에 치우쳐 살기도 하고, 애써 본질을 외면한 채 비본질을 본질인 양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살기도 한다. 반대로 본질을 추구하거나 실천적인 삶의 결과로 얻은 인식에 바탕하여 본질에 충실히 복무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그러한 삶이 민족성원에 끼칠 영향이 어떠하냐에 있다. 그러한 삶이 적극적일수록 민족공동체에 끼칠 영향력도 커지게 되며, 문화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권력을 가지면 그 영향력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여론 주도층이 어느 쪽이 지배적 세력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민족공동체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이제 민족공동체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따질 차례이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배타적 대결적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태도가 가장 비본질적인 삶의 방식이다. 네가 살면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말하자면 상생과 공멸의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가 본질적 삶의 기초이다. 또한, 남·북·해외의 성원들이 단합하여 자주적으로 통합을 이루려는 것이 본질이며, 외부의 힘을 빌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열강의 대결적인 구도에 편입되어 민족적 역량을 소진시키는 것은 비본질이다. 연방제든 연합제든 민족이 통합하여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상으로 본질적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비본질 쪽은 민족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본질 쪽은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민족적인 삶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는 허위의식의 껍데기를 벗어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난 날 민주주의의 반의어를 공산주의라고 배우고 가르쳐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요,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인데도 말이다. 코페르쿠스적인 인식 전환으로 허위의식에서 탈출하고 허위구조에서 해방해야 한다. 남북의 성원들 모두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이념 체계나 남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 파쇼적인 의식구조가 함께 극복되어야 하지만 각기 60년이 넘게 학습되어 이미 체질화된 인식 체계를 바꾸기란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공통점이나 동일성을 애써 찾기보다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사상이나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일 것이다. 일례로, 2003년도에 평양에서 남북교원상봉모임이 있었는데 양측 교원들이 며칠 동안 함께 다니면서 정중하게 사양하는 뜻으로 남측에서는 ‘일없습네다’로, 북측에서는 ‘괜찮습니다’로 바꾸어 말하면서 지낸 일이 있었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말 한 마디가 대번에 서먹

한 분위기를 화기 넘치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남측의 구성원들은 대개 북측에 대해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가진다. 물질이 풍부한 데다 자유와 개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근래 관심을 모은 영화 <우리 학교>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그 영화는 3년에 걸쳐 홋카이도 조선인학교의 모습을 제작자가 카메라에 잡히는 대로 연출 없이 만든 기록영화이다. 풍족한 경제력과 다양한 문화로 선진국의 선두를 달리는 일본에서, 정말 힘들게 민족적인 삶의 본질을 배우는 조선인학교의 한 여고생이 나온다. 고3의 그 여학생은 북조선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다음 “사람이 잠을 편히 자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한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자주적인 삶을 지향하는 북조선과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우나 군권을 외국군에 맡긴 남한을 견주어 하는 말이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항일 무력투쟁과 해방 후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 등을 들어 정통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긴 세계적인 전원도시인 평양 시가지도 그 당시 모습 그대로이니 그럴 법하다. 그 후 북한은 동구권이 서방에 편입되면서 그 때까지 코민테른 내에서 물물거래 방식으로 구상 무역을 해온 체계가 무너져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거기다 미국 일본 등 서방의 경제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어 왔다. 어쨌든 현재는 남한이 민주주의의 역량이 확보되고 경제적으로도 북한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남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말하건대, 북한이 허약한 경제적 조건에서도 유일 강대국인 미국에 맞서 자주성을 당당히 지켜 나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 인민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며, 우리 것을 지켜 내려온 독특한 문화는 평가할 만하다. 북측의 예술 공연을 보면 저절로 감탄하게 되고 감동할 만큼 완성도나 작품성이 완벽에 가깝다. 비인간적인 남한 사회보다 휴머니즘이 존중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노래 두 곡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더할 수 없이 감동 깊은 표현이다.

생이란 무엇인가?

1.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며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2. 시내물 모여서 강을 이루고 날들이 모여 생을 이루네.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 없어라.

심장에 남는 사람

1. 인생에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2.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헤어진대도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이번에 6·15공동선언발표 7돌 기념 민족단합대회의 대회장 밖에 내걸린 <민족도, 피줄도, 언어도, 이 땅도, 문화도, 력사도 하나>라는 구호를 떠올리며 민족적 본질을 되짚어 본다. 한 국회의원을 주석단에 앉히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민족대축전이 이틀 지연된 것은 옥의 티였지만, 백낙청 남측위원장이 전 국민적 환호를 받는 축제로 치르기 위해 애쓴 점이나 내외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이후 교류를 하면서 사려 깊게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끝으로, 민족적인 삶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특히 식자층과 여론 주도층이 우선 허위의식이나 고정관념, 선입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끼리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서로가 사용하는 호칭도 북을 조선, 남을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남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북조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식량과 에너지이다. 고난의 내핍생활을 하는 북측 형제들에게 남측에서 이래저래 까탈 부리지 말고 제대로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평화통일 연구소 소장 강정구

2·13합의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 6·25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전쟁종결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를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 상태를 확립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선결조건과 필요조건으로 한다.

평화협정은 이미 53년 정전협정에서 3개월 이내 회담을 열어 매듭짓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렇지만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는 54년에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을 뺀 참가국 모두가 추진했지만 결국 미국의 훼방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끊임없이 미국주도의 전쟁위기 연속이었고 평화와 통일은 지속적으로 가로막히고 위협받아 왔다.

평화 절대성과 평화와 통일의 불가분성

본격적인 논의 이전 이와 관련 근본적인 전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의 절대성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다. 또 범죄 중에 가장 극형을 받는 범죄 역시 살인죄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목숨 곧, 생명이다. 그런데 이 목숨을 집단적으로 대량 빼앗아 가는 게 전쟁이고 집단학살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한 집단적 생명권 박탈에서 해방되는 권리인 생명-평화권은 인권가운데 핵심적인 인권이다. 지금 이라크 인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자유-시민권이나 사회-경제권 이전에 생명-평화권이라는 사실이 평화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잘 말해 준다.

둘째, 평화체제의 개념규정이다. 평화체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근본적 소지를 제거하여 공고한 평화상태가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확립(보장)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순한 불가침 및 평화협정과 선언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으로 상호 군사적인 적대·긴장 상태가 해소되는 수준을 넘어서서(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군축과 다자간협력평화체제 등을 통해 설사 일시적으로 신뢰가 상실되고 긴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평화상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곧 평화정착이 구조적으로 실현되는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 상태(충분조건)인 전쟁배제 구조의 구축과 공고화를 의미한다. 곧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배제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평화체제가 궁극적인 지향이긴 하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 낮은 수준의 평화체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 단계 한반도평화체제는 높은 수준의 지향과 낮은 수준의 실질적 이행의 구도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셋째, 평화와 통일의 불가분성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특성이다. 한반도평화체제이건 평화협정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의 공고화와 구조화 자체 만에 국한될 수 없다. 이 평화의 공고화와 구조화라는 발판과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이다. 우리의 경우 궁극적인 평화체제는 통일이 아니고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곧 통일 없는 완벽한 평화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협정(체제)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

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곧 전쟁배제 구조를 만들고 통일친화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평화협정의 요체다.

평화위협 토대로서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철수와 철폐돼야

그럼 한반도 평화위협의 실재를 점검해 보겠다. 첫째, 전쟁위기의 경험적 사례분석은 평화위협의 실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체적 보기이기에 이를 통해 평화위협의 실재를 확인해 보겠다. 한반도는 냉전기간에 68년 푸에블로호 정탐선 사건, 69년 EC-121기 정찰기 사건, 76년 미루나무(도끼)사건을 세 번 전쟁위기가 있었다. 탈냉전기간에서는 최소한 일곱 번의 위기가 있었다. 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94년 6월“한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 핵위기, 1-2차 서해교전, 03년 9-12월 전쟁위기, 05년 4-6월 전쟁위기 등이다. 이 가운데 서해교전 두 번을 빼고는 모두 미국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평화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런 경험적 사례와 더불어 미국은 끊임없이 평화위협 구조를 강화하고 공고화 해 왔다.

둘째, 북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으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해 왔다. 셋째,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적의 중심을 파고드는 공중강습 작전(공지전) 전략으로 북한 점령과 선제공격 전략을 연합사 작전계획으로 세워왔다. 이들 작전계획이 5026에서부터 5030이고 미일의 작계 5055에 이른다. 이에 덧붙여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계획인 북한난민 발생 시 대응책인 충무 3300, 북한정권 붕괴 시 북한 지역 비상통치 계획인 충무 9000을 세워 놓고 있다. 넷째, 대북 침략전쟁연습인 연합전시증원훈련(RSOD)과 독수리훈련(FE)의 통합훈련,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해 오고 있다. 다섯째, 여기에다 콘플랜 8022의 핵우산전략과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 0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평화위협의 실재를 확인해 본 결과 결론은 한반도 평화조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위협의 토대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철폐가 본질적 논의사안임이 자명해 진다.

전쟁배제 구조화를 위한 남측 군사체제의 근본적 변환

이와 더불어 남쪽의 대북과잉억지력 수준의 군사력 또한 전쟁배제 구조를 위해서는 필히 조정되어야 할 핵심이다. 남북 군사력을 단순·특징화 한다면 남은 대북과잉억지력, 공격형, 질적 역량 압도라는 특성을 북은 방어형 군사체제, 지하화, 인력 의존형, 질적인 절대 열세, 양적의존 특성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2006 국방백서](201쪽) 남북 군사비 비교는 004~06년 북은 각각 3.9억, 4.6억, 4.7억 달러의 군사비를, 총예산을 각각 25.1억, 29.0억, 29.4억 달러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남의 국방비는 '06년 22조5129억(230억 달러) 07년 24조7000억(250억 달러)로 아예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

05년 3월 8일 미국 상원군사위 06년도 예산안청문회에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에 대해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에 군사준비 태세로는 부족하며, 지상군은 여단규모 기동훈련이 매우 드물 정도로 대규모 기동훈련은 줄어든 채 사단급 이상은 주로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으며, 물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한

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은 한 달에 15시간 비행훈련을 한다고 라포트 사령관은 밝혔다. 한국군의 대북 과잉억지력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확장 및 집결되면 한국군은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서 동북아와 전 지구 전담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곧, 한국군사력만으로 대북 억제력이 충분하니까 미군은 동북아기동군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북의 군사력이 절대적 열세인 상태에서 남을 위협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나? 또 비정상적으로 의지를 갖는다하더라도 과연 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한반도평화체제나 평화협정은 남도 북처럼 방어형 군사체제로 재편하고 대대적인 군축을 감행해 전쟁배제 구조화를 정착화 해야 한다.

통일 가로막기 주도자로서 미국과 그 토대인 주한미군과 군사동맹 청산

다음 통일 친화적 평화협정과 체제를 위해서도 주한미군 철군과 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일이 가로막기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미국은 통일의 결정적 계기마다 개입해 통일이 가로막기의 주범역할을 해 왔다.

48년 1월 유엔조선위원단의 방한으로 분단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인 4월에 열린 남북연석회의 합의 사항인 외국군철군 후 통일정부 수립은 미국의 철군 거절로 분단선거 강행되어 결국 분단으로 귀결됐다. 이어 72년 7·4공동성명 이후 73년에는 교차승인에 의한 두 개의 한국정부를 강요해 6·23선언으로 7·4공동성명을 훼손하고 분단영구화를 꾀했다. 다음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되자 92년부터 특별핵사찰을 강요해 93-94년의 영변핵전쟁위기를 일으켜 이 결과 통일정국이 중단됐다. 또한 2000년 6·15공동선언이 이뤄지자 미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02년 고농축우라늄 핵위기를 조장해 찬물을 끼얹었다. 더 나아가 02년 12월 5일 미래 한미동맹구상이란 비밀 합의를 통해 한미 공동으로 흡수통일을 추구하고(이는 필연적으로 제2의 6·25로 귀결되는 반통일반민족의 전형임), 통일 이후에도 미군주둔을 보장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고찰에서 통일이 가로막기 주도자의 물적 토대인 주한미군과 군사동맹 청산 없이 통일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이렇게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철수와 군사동맹철폐는 핵심임에도 단지 미국의 막강한 힘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명확한 지침 없이 꿈지를 빼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전망을 밝게 해 준다. 주한미군 문제는 이제 미시적 삶의 차원과 민족사의 자주행로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고, 대중적 인식전환을 맞았다.

미군문제는 개인과 민족의 생명권, 국가사이 평등권, 반환기지 오염으로 인한 환경권, 매항리-무건리 폭격피해로 생활권, 주한미군 범죄에서 한국인의 인권, 작전통제권과 자주권 중심의 주권, 통일권, 평화권과 생명권, 우리 땅을 되찾겠다는 재산권 등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결과 국민일반의 여론 역시 주한미군불가피론에서 미군철군당위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05.5.10)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편에 서야 한다'는 47.6%로 미국 편 31.2%를 훨씬 앞섰다.

높은-낮은 수준 평화체제와 동시-단계 이행의 전략 병존

이제 우리 모두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50여년 만에 찾아온 이 결정적 계기를 맞아 주한미군 철군과 군사동맹 철폐의 절대적 계기를 일궈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 확고한 다짐을 해야 한다.

지금 한미동맹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허구적 평화체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둔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주한미군철군-군사동맹철폐와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연계시켜 이를 매듭짓는 평화체제 구축에 매진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협력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한반도평화체제와 접목시키는 ‘완벽한’ 평화체제 또한 우리의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난 5월 9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이 넘게 참가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작전통제권 환수, 도루묵되나?

교육팀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구의 말일까?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다.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 17일에 환수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지난 2월 24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사가 쥐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이행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신한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의한 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과제와 담당부서, 추진일정을 명시한 한미공동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했다간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굴욕적인 군사예속”으로 떨어진다.

왜 그럴까?

1.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투사령부 창설 계획이 없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전시에 전투 지휘를 총괄하는 사령부로서 한미연합사와 같은 위상의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 2006년 8월 17일 작통권 환수 로드맵 발표 때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행계획은 한국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강화하여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조차 없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무한정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고, 한국군에도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가 없게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다. 참모부서에 불과한 한국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가 실질적인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한다면 굳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유엔사가 전투사령부?

이와 관련하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은 8.17 작통권 환수 로드맵 발표 이후,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면서 한국 측에 위기관리 및 조치권한을 요구해왔고, ‘지휘와 노력의 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전시전환권과 개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관변 연구자들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로 작통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행계획에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제외시킨 것은 유엔사의 강화와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한다는 전제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즉, 유엔사를 사실상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경 미국은 이후 작전통제권 관련약정 및 합의각서 작성과정에서 위기관리권, 정보 및 C4I 권한을 비롯하여 유엔사와 한국 합참과의 관계,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삽입함으로써 유엔사가 한국의 작전통제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유엔사는 제2의 한미연합사 구실을 하게 된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군사주권 회복의 호기를 놓치는 것이자, 유엔사를 통한 유사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통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다.

[유엔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엔사는 애초부터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유엔안보리 결의 84호, 1950. 7. 7)로 창설되었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허울을 쓰고 행세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국의 대북 공격에 이용되어 온 대북 적대기구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해체가 결의 △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영어의 몸이 된 이시우 평화사진작가의 부인 김은옥 씨가 지난 6월 12일 93차 반미연대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다.

3.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간 군사협조기구

또한 이행계획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여 공동정보센터 등 6개의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며, 그 밑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AMCC를 신설하여 MC를 강화하는 것은 한미간 ‘협조’를 구실로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이전보다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C4I 등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겼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작전사급 협조기구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공지전 교리에 따른 중심작전 수행의 주력군인 공군이 결함의 최고형태인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통합항공우주센터(IAOC)를 설치한다는 것은 작전과 전력에서 앞서는 미국이 이를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미국이 해공군 위주로 전투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도 없었던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작전사 수준으로까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새로운 한미군사협

조기구는 국방부 당국자의 주장처럼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체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세부적인 각급 한미군사협조기구의 신설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협조’와 ‘지원’, ‘공동’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60년에 걸친 종속적 관계와 군사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미국은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제도화·상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 수행하는 작전 - 한국 합참은 미군의 보조기구일 뿐

한미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기구에서 합의한 전략과 작전에 따라 한미가 공동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적 대미 종속성이나 군사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 미국 주도로 이뤄져 온 전략과 작전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가 ‘합의’한다면 그것은 말이 ‘합의’이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전략과 작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전략과 작전이 미국에 종속될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작전통제권이란 기껏해야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전술차원의 군사목표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 합참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작전권 환수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국방부는 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유엔사에 넘기는 이행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서야 한다.

최악의 경우, 유엔사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가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인 2012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작통권 환수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가 존속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희 전 합참의장 등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게 하는 요소다. 따라서 유엔사 강화를 통한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북에 대한 개입 기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는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보장하는 모든 상설적 한미 군사협조기구의 설치, 강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각종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미군 증원계획을 포함한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미 당국이 합의한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를 전쟁의 목표로 하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여 공지전 교리에 따른 중심작전을 미국 주도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하려는 것도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적 작전계획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이든, 증원전력이든 미군이 투사되는 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송두리째 넘기고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 역사상 그런 전례도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한다는 지금 시점에서도 위기관리 권한에 대한 한미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는 또한 합참이 공격적 작전계획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주한미군과 증원전력을 요구하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근본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간섭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상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도 스스로도 북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미국의 작전통제권 개입의 빌미가 될 공격적 작전계획과 미군 증원계획도 폐기해야 한다.

‘한미동맹’, ‘군사적 효율성’, ‘군사적 준비능력’ 등을 빌미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과거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변형하여 연장하자는 것일 뿐이다.

작전통제권은 어떤 예외나 조건도 없이 전면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고리를 끊자!] 와사(미군 쓰레기 탄약) 이야기

미군 쓰레기탄약도 한국이 처리?

김장수 국방장관이 최소 4천억 원을 넘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한 말이 있다. "한미 동맹을 위해 결단"했다는 거다.

김장수 장관이 한미동맹을 위해 결단한 일이 이 번 뿐일까?

아마도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 부담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도 '한미동맹을 위한 결단'의 결과이리라. 한미동맹을 위한 정부 관료들의 '결단'에 우리 국민들만 녹아난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와사)-K)를 처분하기 위한 첫 한미 협상이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를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소유의 '전쟁비축물자' 처리를 위한 협상이었다.

도대체 와사라는 게 무엇이고 무슨 협상을 한 것일까? 하나씩 알아보자.

☞ WRSA(와사)란?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의 약어. 이른바 동맹국에 비축한 전시예비물자를 말한다. 대부분이 탄약이며 미국 소유이다. 우리는 이 와사탄을 30년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 관리해주고 있다. 그 비용은 직, 간접비를 합쳐 5조원이 훨씬 넘는다. 뿐만 아니라 약 60만 톤이나 되는 와사탄을 위해 1,8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수 십 년 넘게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다.

☞ 와사는 언제, 왜 들어왔나?

전쟁비축물자는 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도태탄약, 수요초과 탄약을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군사 전략 실행을 위해 들여온 것으로 애초부터 들여와서는 안 될 탄약들이었다.

☞ 와사 저장 관리 비용을 왜 우리가 냈나?

저장, 관리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 합의각서)라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을 통해 그 비용을 우리나라에 강요해왔다.

☞ 미국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전쟁비축물자는 즉각 미국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더구나 미국 자신이 전쟁비축물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미국 탄약을 저장 관리해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미국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은 60만 톤이나 되는 도태탄약을 자국으로 가져가 처리할 경우 13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게 되니까 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와사탄은 20년 이상 장기보관 되어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 90% 이상으로 이를 폐기하는 데만 수 십 년이 걸리고 이른바 비군사화(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억 달러가 넘는다.

☞ 협상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미국은 노후 탄약의 폐기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와사탄을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 후 우리 국방부는 대부분의 와사탄이 사용 가능하고 사용불능 탄 약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2002년에 강창 선 국회의원이 와사탄 대부분이 쓰레기탄약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국방부는 탄약을 비군사 화할 경우 재활용하여 마치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쓰레기 탄약 을 인수하려는데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려 한다.

국방부가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영동에 탄약처리장 건설에 나서는 것은 협상과 상관없이 미군의 쓰레기 탄약 인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우 리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있 을 수 없는 일이다.

7월 중에 있을 협상에서 국방부가 어떤 처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 한국을 미군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만드는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자!

그 동안 수십 년 넘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전쟁비축탄을 저장, 관리해 온 것도 부당하기 짝 이 없는데 여기에 더해 전쟁비축탄 처리시설을 지어주고 폐기처분까지 해주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 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WRSA-K 품목 이양 법]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 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 국방부가 전쟁비축탄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 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 또한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한미동맹을 폐기함이 없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비롯하여 SALS-K 등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간 협정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 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국방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안보 를 생각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들에 대한 개폐작업에 나섬은 물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힘내세요! 충북 영동'매곡면 고폭탄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여러분!
주민들의 미군 폐기탄약처리시설 건설 반대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군축팀 부장 이경아

와사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90%이상 노후되어 쓸모가 없게 된 미군 쓰레기 탄약을 처리해주기 위한 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방부가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소각시설 2기(시간당 각각 1,500kg, 466kg처리)와 용융시설(녹이는 시설) 20기(시간당 166kg 처리)등 국내 최대의 탄약 폐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설의 폐기탄약 처리 용량은 연간 14,200여 톤에 이른다.

이에 그 곳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매곡면고폭탄반대대책위원회’(이하 매곡면대책위)를 찾아갔다. 미군팀 공동길 국장과 대전충남 평통사 박석진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평통사 사무실에서 출발해 충북 영동까지는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다. 영동의 특산물이 포도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길가에는 포도나무 받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매곡면에 도착한 우리는 박홍렬 위원장과 반갑게 만나 현장 근처로 이동했다.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 군 초소가 보였다. 박 위원장은 군 초소 뒤쪽으로 탄약폐기시설이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 아래 인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박홍렬 위원장은 군인들이 산꼭대기 초소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포도밭 위로 푸르름을 뿜내며 웅장하게 서있는 산등성이에 미군 탄약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답답함과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사진을 찍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 허락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 소수 몇 사람만 빼고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탄약처리 시설에서 4km떨어진 곳에 영동군 네 개면이 먹는 상수원을 비롯해 대전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상류지역이어서 폐 탄약처리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해 얼마든지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홍렬 위원장은 그간 투쟁 경과를 “많이 힘들다”고 한 마디로 표현했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속이고 만든 시설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방부와 영동 주민들과의 싸움은 2000년부터라고 한다. 당시 화학탄 처리를 위한 ‘화학물질처리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2001년 완공된 ‘화학물질처리시설’은 설립목적과 용도가 정확하게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민동의 없이 몰래 지어진 것이었다. 당시 주민들이 시설에 들어가보니 시설이 완성되어 시험가동까지 한 상태였다. ‘화학물질처리시설’ 반대를 결의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선 철로 점거 등 완강한 투쟁을 벌였으나 집행부 5명이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조직 유지가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 게다가 국방부는 주민들을 매수(화학물질처리시설에서 주민 20명을 근무시킴)하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국방부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만 시설을 사용하고 중단한다’고 약속해서 투쟁이 마무리되었는데, 막상 올해에 가동 중단은커녕 미군 쓰레기 탄약 처리시설이 추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평통사가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시설을 제 때 가동하지 못해 2008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부는 ‘화학물질처리시설’ 건설에 이어 미군 폐기탄약을 처리해 주기 위한 시설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매곡면고폭탄처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안병익 대책위 간사는 2005년도에 4차례 대구 집회를 했고, 국방부 상경 집회도 했으며 탄약폐기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힘든 과정을 설명했다.

안병익 간사는 “우리의 투쟁이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나와서 경부선 철도를 점거하는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롭고 고단한 투쟁을 회고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딱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평통사를 그 때 알았더라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현재 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투쟁이 지금까지 7년 이상 장기화 되다보니 주민들도 지치고 재정적 여력도 없다는 것. 특히 싸움의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문제로 어려움이 컸다.

평통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 6월 20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 2심 마지막 심리를 앞두고 대전법원 앞에서 ‘미군쓰레기 탄약 폐기시설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규현, 변연식 두 대표님과 대전충남 평통사 원용철 대표 등 평통사 일꾼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동참했다. 무엇보다 고맙고 반가운 것은 지쳐있던 주민들이 다시 기운을 내어 여덟 분이나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군 폐기탄약시설 반대투쟁을 멈출 수 없는 주민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은 8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에 평통사도 함께 할 것이다.

△ 행사를 마치고 모두 모여~ 찰칵^^

△ 취지발언을 하는 원용철대전충남평통사 공동대표

△ 충북 영동 매곡면 고폭시설 반대대책위의 박홍렬위원장

△ 함께한 주민들

△ 함께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이 달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 김병균 목사

인터뷰.정리/정동석 (회원사업팀)

김병균牧사는 ‘흔치 않은 목사’다. 목사인데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미군을 반대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다니신다. 그 점에서는 우리 홍근수 대표 ‘계열’ 목사다. 한국 기독교 풍토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걸까?

결정적인 계기는 광주 5. 18 민주항쟁입니다. 군부독재의 폭력성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운동에 젊은 목회자로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 제 운동의 출발입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태복음5:9)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즉 정의와 평화가 임 맞추는 세상을 심기 위해서 신앙고백적인 자세로 민족자주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통사야말로 제 신앙인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 나눔’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홍근수 목사님, 문규현 신부님 등 애국민족민주 인사들과 양심적이고 유능한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운동이기에 저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균牧사는 지난 2005년 패트리엇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 부시 정부가 북을 겨냥해 만들고 있는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MD가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선제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진행되면 한반도에 전쟁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광주를 비롯한 서부벨트(군산-오산으로 이어지는)를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삼게 된다면 이 MD 서부벨트는 미사일 공격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 이런 흉물스러운 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광주 지역의 투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이 광주에서는 물러갔지만 경상도로 이전되어 간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어떠한 첨단무기도 물러가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모든 나라 즉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군축운동, 비핵화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놀라울 정도로 학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조국은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가? 세계는 과연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깨뜨리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공부(工夫)란 말의 한자의 의미는 ‘工’이 ‘장인공’ ‘전문가공’입니다. ‘夫’는 ‘하늘천’을 뚫

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현실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치가 바로 공부의 이치입니다. 공부를 해야 내가 바로 서서 남을 다스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기치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민주, 인권, 통일, 평화협정, 철학, 과학, 정보에 대한 공부는 바로 ‘생명세상’ ‘나눔세상’을 펼치기 위한 기본입니다.

고전과 현실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고전만 보면 아는 것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온고지신’이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서 하신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해야하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운동가들이 모순된 국방정책, 잘못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려면 역사적 배경, 흐름, 사례, 의도, 그들의 목표까지 알아야 합니다. 민민운동의 생명은 역사의식과 역사적 통찰력과 정보력,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 [사진 - 자료로 빼곡한 서재에서, 사모님과 함께 하신 목사님.]

목사님 서재에 자료파일이 빼곡하네요.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남다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언젠가부터 저는 신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의 기사들을 모았다가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파일에 꽂아 두었습니다.

혹시 강연을 요청받거나 글쓰기를 부탁받으면 신문만 꺼내서 풀어 놓아도 자료도 되고, 영감도 떠올라서 좋습니다. 주로 한겨레, 경향,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방지, 교계신문 등입니다. 저같이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사람은 이 신문자료만 잘 활용해도 제 공부도 되고 기고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저는 어떤 모임, 집회, 예배, 대화시간에든지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회의진행순서, 발언 내용까지 기록해놓습니다. 그리고 잘 분류정리해 놓습니다. 같은 주제로 모아놓으면 나중에 운동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메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전공분야의 교수님, 예술가, 운동가 실천가들을 만나면 궁금한 것을 즉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적어 놓습니다. 책은 종이 활자화 된 것만이 아니라 홍근수 목사님, 문규현 신부님, 배종렬 의장님 등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한 권의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니 공부가 제 생활이요 재미입니다.

우리 젊은 활동가들이 목사님 공부하시는 모습은 정말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기대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평통사가 ‘만경대 정신’ 사건 등으로 보수수구 언론에 몰리고 있는 강정구 교수님 같은 분을 잘 모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의리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평화군축운동에서 나아가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평등경제 운동에 관해서도 학자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동북아 문제요, 세계평화의 한 축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모순이 풀리므로 세계역사의 방향을 무력경쟁체제서 평화세상체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지만 평화를 희구하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대국의 횡포를 물리치고 ‘무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섬김이 평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조국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약소민족국가들의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과 실천운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사진 - 시무하시는 영산강 교회 앞에서 사모님과 함께]

[후기] 젊으실 적 이야기, 우리 민족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 등 풍부하고 해박한 말씀을 다 신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열어가는 길에 큰 힘이 되어주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조직강화를 위하여 - 강연회 지상중계
광양항 미군기지 이전 저지 투쟁 사례

녹취 : 부천평통사 최경순

정리 : 회원사업팀 유한경

지난 5월 21일, 부천평통사 강의실에서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모신 가운데 ‘광양 미군기지 저지 투쟁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조직강화를 위한 1차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교육팀이 주관한 이 강연회는 평통사가 전개한 투쟁들도 잘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교양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평통사 조직력의 강화가 이후 전개될 모든 투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강연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녹취를 하느라 애쓰신 부천평통사 최경순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광양 투쟁에는 애항심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방, 특히 시골공무원에게는 애항심이 더 있어요. 그리고 전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애항심이 남달리 쌓였습니다. 섬진강 줄기 따라 내려가면 광양만이 둥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전어잡이가 유명합니다. 전어축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몇 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노동요인 전어잡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70~80세 노인에게서 노래를 전수받고 이걸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광양은 매화마을, 매화의 본산지입니다. 광양 매실이 최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광양 북놀이도 유명합니다. 광양 농악에서는 북 테두리를 절묘하게 꼭 때립니다. 덩덩 따따 덩덩 따 이렇게요... 보쌈놀이, 전래놀이도 복원시키고, 남도문화제에서 상도 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우리 것에 대한 애착, 우리 땅에 대한 애착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항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또 노조활동을 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씩씩하게 함께 투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제가 뛰어난 활동가였거나 이 분야에 학식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광양항 전경. 매립공사가 한창이다. [사진 제공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그 전에는 군수물자가 광양을 통해 들어오는지 몰랐습니다. 한미전시증원연습 때 오끼나와에서 큰 배로 헬기, 탱크 부품이 들어오고 도착 후 조립해서 열차로 싣고 전방으로 옮겨지고 하는 일들이 2, 3년 사이에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삼은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 올해는 헬기도 뜨

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에 다양한 방법으로 군수물자가 이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 군수물자를 포함해서 항만은 물건이 얼마나 많이 들고 나느냐에 평가와 통계수치가 나오니 비 안 맞을 창고는 지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만 짓겠습니까? 창고를 지으려면 일반물자에서 병기, 화학물품, 탱크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눈여겨 봐야합니다. 워낙 위치가 좋아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쟁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을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투쟁은 여론전입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군사 관련해서 정책을 이반하는 과정의 기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확정된 후에는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앞장선 대표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내주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내주는 조직반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노동대오 조직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양시청 공무원 노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돈도 내고 사람도 내고, 충실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확실히 물고 늘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투쟁대상의 약점을 살살이 뒤져서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설조직이기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다른 공무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직접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류도 없었습니다.

자유구역청은 주로 바이어를 상대하기 때문에 접대문화가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예산을 가지고 접대비로 자유롭게 쓸수 없게 되어있어 바이어를 접대하려면 편법을 써야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론을 기반으로 하되 대중적, 군중적 기세로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끈질기게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페트리엇기지, 평택미군기지 등 미군, 군사 문제는 특히나 어려운 싸움이기에 이런 자세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시민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심리적인 지지, 80%이상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는 받았지만 일반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한다든가 촛불을 든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원금 주신 몇 분 있는데 아줌마 두 분을 포함해서요. 역시 아줌마들이 낫습니다. 주로 조직적인 노동대오에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기가 올랐다면 후원계좌로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가호호 2만장을 돌리기도 했거든요.

두 번째는 관변화되어 있는 봉사단체, 상공인 단체들이 찬성 입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투쟁대오에서 이탈했습니다. 물론 전회원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표들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처음 시작한 성명서도 같이 내고 잘 싸웠는데 나중에는 엉거주춤하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힘차게 능동적 자세 가지도록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지는 못해 아직 문제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입장에서는 미군기지 추진일정이고 우리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쟁일정입니다. 이 과정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긴박하게, 우리가 발 빠르고 집요하게 투쟁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3일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공무원노조 중앙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고, 2006년 2월까지가 임기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5년 6월에 주한미군 수송장교 11명을 광양항에 초청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항구가 기막히게 좋으니 이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사물자든 뭐든 가리지 않고, 광양항 실적이 된다면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청장은 해양사무관 출신으로 주한미대사관과 미국 현지에서 가 있기도 했습니다. 해양물류에도 해박하고 미대사관과 미군측에도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월에는 한미연합사 수송고위층관계관을 초청해서 물량 넣어 달라 요청하고, 11월에는 하와이 태평양사령부까지 가서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1월 13일 건설부장관에게 가서 광양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KBS, CBS 방송을 통해 “미군은 아시아지역의 모든 군사병기와 병참기지를 광양항에 둔다는 계획 하에 2006년 2,3 월경 미국방부 소속 군수사령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때까지 광양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맡기는 했지만 한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총파업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석방 후에는 해고자 문제, 조직복원 등의 활동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로 12월 17일 민중연대 성명서를 내고 이어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12월 23일 화물연대 등을 조직하여 차량시위를 벌였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26일 백옥인 경제자유구청장을 만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평택미군기지 투쟁에서 미군기지에 쉽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상공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공인들을 10홀 간 전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실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 상공인을 포함하여 30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애프터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거품을 물고 장한 일을 했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일단 자리배치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강연식으로 자리배치가 되어있어 강의 들으러 온 것 아니라 대화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구청장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때 열 받아서 구청장에게 호통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 당신이 미국공무원이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자유구역청장이 열 받아서 “시민단체 여러분은 컨테이너박스 하나라도 끌어오려 한 일이 뭐있냐 관공서나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냐”며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유치는 6월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아직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후 확정하리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입장을 표명하고 간담회를 마쳤습니

다.

그리고 12월 23일 무렵 주한미군, 국방부, 청와대에 “왜관에 100만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참기지가 광양으로 온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보낸 문서로 만든 공문에 대해 “1월5일 현재는 계획이 없다.”며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 3월 중에는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방침을 정하거나 발표를 한 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미군보다 훨씬 답변이 늦더군요.

어쨌든 물밑에서는 계획이 오고갔으나 공식적으로 방침을 정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적인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싸움을 전개해나가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 파면요청을 하였습니다. 도지사 지시도 없이 멋대로 100만평 땅을 미군에게 팔아먹으려는 자유구역청장 파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월 3일 민중연대가 나서서 지역언론사와 함께 왜관에 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깨기 위해 우리의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왜관미군기지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악 영향을 미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운데 미군기지가 차지하면서 계획적 도시개발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선지 60년이 되었는데 기지 근처 가게들이 미군들이 물품을 자체 공급하여 사용함으로 문을 닫고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 된 사실들을 지역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매주 1탄, 2탄 등으로 내보내고 방송도 나가고 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광양의 자존심과 존폐가 걸린 문제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 왜관 답사를 1월 10일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시청관계자, 시민단체와 함께 말입니다. 정말 볼수록 그 문제점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관 칠곡군 관공서에서 94년도에 ‘미군기지 이전 의회결의’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 곳 공무원들은 “미군기지는 지역개발에 암적 요소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즉시 이를 알려내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에서 며칠 고민하다가 1월 17일 광양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표는 못해 우리가 대신 환영논평을 내어 의회의 결정을 공개 하였습니다.

1월 7일에는 팽성주민대책위 트랙터순례단이 방문하여 같이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민중연대가 시의회, 시청, 해양수상청, 여수항만청 등과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미군기지 유치에 반대 입장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찬성입장을 내거나 앞장서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월 16일 민중연대가 대책위 제안하여 1월25일에는 170단체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쪽 시민단체, 민중단체가 다 참가하고 광주전남은 진보연대, 통일연대, 경남 서부 지역까지 단체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조 대의원대회, 농민 대의원대회, 당 행사에 참가 찾아다니며 경과설명 도움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주1회 가가호호 방문 때 여수, 순천에서 어김없이 몇 명이 와서 작업을 같이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 2006년 3월 4일 오후 광양시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은 광양미군기지 이전반대 1차 범시민대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였다. [사진 제공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 와중에 도지사가 1월 도지사 업무보고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현직 도지사도 예비후보였습니다. 각 당 후보 예비후보들을 시청 노조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언론 접촉도 쉽고 후보들이 부담 없이 오기도 쉬운 시청이야말로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부서 간부들의 관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실사해보니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선주들을 데려다가 고급호텔에서 채우고 10만원자리 밥도 사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자료 분석을 하니 공무원이 공무원을 잘 안다고 자료 분석을 아주 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단체들끼리 특성을 살려 역할 분담도 하였습니다. 한 단체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가지고 자료검토를 하고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검찰은 시간 끌고 몽개버리기 쉬우니 일단은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감사원을 통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검찰 고발까지 해서 옷 벗기겠다.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약점을 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7월 18일 드디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만나자고 하더니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유구역청장도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여론을 만들어나간 우리 활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동사무소 돌면서 행정의 실핏줄이며 여론을 주무르는 통장, 부녀회장 회의에 음료수 사들고 찾아가고, 상공인 간담회도 하며 여론을 뒤집으려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와서 알지 못할 어려운 얘기들만 늘어놓으니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여론전에 밀린 것이었습니다.

“자유구역청장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암적 존재다. 오히려 행정만 복잡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하라는 투자유치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실적 없으니까 미군기지로 실적 올리려하는 것 아니냐.”

부산, 인천 자유구역청과 비교표를 시리즈로 뽑아서 뒤떨어지는 점들을 언론에 내고 홈페이지에 폭로하고 하니 무지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담회 내용대로 직접 기자회견까지는 어렵다고 하여 우리가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투쟁을 통해 꾸려진 동력을 한미FTA 저지 투쟁 동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쟁에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문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렵고 복잡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광양을 살립니다’, ‘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하라니 미군에게 땅 팔아먹으려한다’, ‘미군기지 건설에 5년은 걸리는데 그 기간이면 충분히 물량유치 가능하다’, ‘미군와도 자신들 물품 가져오지 우리 것 안 쓴다’, ‘미군기지 들어오면 겨우 300명 일자리 생기지만, 100만평에 공단 들어서면 2만~3만 명 일자리 많게는 10만 명 일자리까지 생긴다’는 등 말입니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여러 곳의 예를 들어 환경오염, 성범죄, 왜관의 문제점, 군사기지가 들어옴으로써 미군의 통제를 받게된다는 점등을 직접 제가 문안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서 손을 보았습니다.

투쟁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시민들의 마음 여론을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나에 승패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투쟁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정신없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동시다발로 말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물총고기가 있습니다. 이파리에 앉아있는 파리를 잡는데 수많은 물총고기가 동시에 물을 뿜어 댁니다. 성공확률이 80% 랍니다. 물총고기처럼 정신없이 동시다발로 1인 시위, 집회, 선전전, 정보공개청구, 고발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투쟁대상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도지사도 동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대신 우군은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상공인, 봉사단체 들을 초반에 만나서 설득을 시켜내는 것은 물론, 종교인들도 조직하였습니다. 원불교, 기독교 등, 한 예로 목사님의 도움으로 700명이 참가하는 노회 총회에 찾아가 유인물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노회 성원들이 다양하여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행사 때 옆에서 유인물을 돌려 투쟁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진보연대 등을 통해 광양상황을 계속 알려냈습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부터 광주, 광양, 평택으로 이어지는 대북, 대중국 서해안 벨트를 막아내야 한다고 알려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직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전물을 2만부 찍었습니다. 4만 가구가 있습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2만부를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밀집 주택가 등에 말입니다. 투쟁 처음에는 여론 환기를 위해 집회 등을 주로 하지만 결국 여론전이 본격화 될 때는 시민들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미군기지 반대가 신념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알려야 하고 이는 투쟁에 나선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전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야 하기 때문에 아침산책을 선전전으로 대신하기로 맘먹고 한 시간에 2백 가구 정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유인물을 문 앞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야쿠르트 배달을 하는 집사람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데 당신이 꼭 그 꼴이다. 당신이 새벽 6시에 붙이면 7시부터 청소부들이 다 떴다. 그러니 청소가 끝나는 오후4시 이후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 아파트는 오후에 붙이고 주택가는 아침에 붙이고 이렇게 동지들과 꾸준히 선전전을 하여 2만가구가 돌 수 있었습니다.

술집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원룸에도 열심히 붙였습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서민들이고 많은 사람만나는 사람들이라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연함을 가져야합니다. 싸움 잘하고 막판에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얘기한 시의회 입장공개나 자유구역청장의 항복 선언을 우리가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등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사람을 남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육성하는 싸

움 말입니다. 우리는 미군기지 싸움을 FTA저지 싸움으로 연착륙 시켜냈습니다.
실제로 투쟁과정에 어민회가 함께 해주었고 시민단체, 또 진보연대를 결성하는 과정에 지역
단체의 연대를 끈끈히 하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저지 투쟁이 성공한 이유는 지방 사람들 특유의 애항심이 강하게 작용한 이
유를 첫째로 들 수 있지만, 아직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시로 탱크나 헬기
등의 군수 물자들이 수시로 광양항에 드나들고 있고, 병기창을 세우자거나 하는 시도가 끊
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미군기지와 한국의 미군기지를 연결하여 대중국 봉쇄망을 펼
치려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본다면, 최적의 전략적 요지로서의 광양항을 포기 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 이 날 강연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실무자와 핵심회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평통사-회원들의 생활 이야기]
71년 돼지띠 동갑내기-백차현·박희정 부부 이야기

인터뷰/정리 : 김슬기 서울평통사 홍보부장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듯, 햇살이 제법 뜨겁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토요일, 박희정·백차현 부부 회원을 만나러 갔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열아홉 살 때, 관악지역의 신대방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 야학에서 만났어요. 처음 야학에 가니 여자 셋 나란히 앉아있는데 가운데 희정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모자티를 입었는데 희정이 옆에 있던 친구가 모자에 자꾸 껌종이 같은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뒤돌아봤는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백차현 회원은 당시 철야, 잔업 수당 없이 월급 20만원을 받으며 구로공단에 있는 봉제공장을 다녔다고 한다.

“야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 년에 한번 전화 수첩을 정리할 때 번호가 맞아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일년에 한 번씩 연락하다가 스물네 살 때 야학친구들과 만나게 했는데 이 친구가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어떤 작전이었을까?

“작전 1단계는 희정이가 다니는 공장 점심시간에 맞춰 전화를 매일 했어요. 그냥 ‘뭐하냐? 밥먹었냐?’라고 묻는 전화를 한달동안 매일 했어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궁금해졌는지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백차현 회원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한 친구를 따라서 박영진 열사 추모사업회 산하단체 출판 ‘여는 몸짓’에 가게 되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 남부지역 금속노조 굿패 우모추(우리모두모여춤을추자)에서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구로지역 열사문화제에 참가한 다살이살판 풍물패 서영석(현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희정 회원은?

“회사에 다니느라 승이를 새터어린이집(이하 새터)에 맡겼어요. 그때부터 새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새터에서 노뚝돌 언니들을 알게 되었지요.(노뚝돌은 지금 서울 평통사 여성분회)”

부부에게 서로의 닮은 점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니 “무엇보다도 무뎀한 성격이 닮았어요. 연애할 때 놀러가서 텐트치고 3일내내 김치찌개만 해서 먹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 성격이 무뎀해요. 집안일도 특별히 분담하지 않고 지저분하면 아무나 청소하고, 빨래 있으면 개키고 그래요.” 란다.

그래도 부부로 살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차현씨가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힘들었어요. 차현씨가 한 직장에서 가만히 오랫동안 일하는 걸 못해요. 지금은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에서 유기농 식품을 주문받고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성격에 맞는 거 같아요.”

이 부부의 아이들, 특히 승민이는 사건사고가 많은 개구쟁이로 평통사에서 유명하다. 그

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길 청했다.

승이 이야기는 박희정 회원이 해주었다.

“승이는 3학년 초에 소아우울증이라 진단받고 약 복용과 놀이치료를 1년 넘게 병행했어요. 그러다가 4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축구를 좋아하게 되어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승이 스스로 놀이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요구했어요. 승이는 학기 초에 사람사귀는 거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당시 담임선생님은 승이가 야단을 맞으면 눈물을 계속 쏟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며, 연락을 해서 학교로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4학년 담임선생님이 승이의 이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주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성격도 밝아지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일찍 하는 축구연습에 꼬박꼬박 나가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뽑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소신을 갖고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승민이 이야기는 백차현 회원이 승민이가 그랬다는 그림을 보여주며 시작했다.

“이틀 전부터 승민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법 잘 그렸죠? 원래 그려진 그림 위에 흰 종이를 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늘아침에 그림을 완성해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구요. 어떻게 종이를 대서 그릴 생각을 했는지.....승민이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몸에 좋지 않아 먹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승민이가 담배피우는 저에게 ‘담배 피우면 몸에 더 나쁘지요?’하더라구요. 할 말이 없어서 ‘저리가!’라고 소리질렀죠.(웃음) 저는 아이들이 미치도록 좋아요. 그저 두 아이들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꿈을 물었다.

백차현 회원은 “현장과 함께 하는 춤패에 들어가 직업으로 춤을 추고 싶어요. 지금은 일하면서 가능한데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춤을 배우려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네요. 봉천놀이마당 양산사찰학춤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고백했고, 박희정 회원은 “비즈공예를 구로여성회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CA를 뚫어서 하고 싶어요. 중학교 소모임도 꾸려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평통사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박희정 회원은 지난 6월 24일에 “용산미군기지 제대로 되찾기-용산기지 둘러보기”에 참가했다.

“일기예보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여 부담스러웠지만, 참가하고 나니 좋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여성분회 회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상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돼요. 활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찾게 됩니다.”

백차현 회원도 고개를 끄덕인다.

“평통사는 이슈화되는 것들을 잘 합니다. 용산기지 둘러보기도 잘 된 프로그램이죠. 용산에서 살기도 했고, 지나다니며 매일 보던 곳인데, 용산 미군기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했다.

백차현 회원이 “행사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는데, 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봤다가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선불리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평통사 회

지는 학술지처럼 어려워서 보다가 말아요.”라고 하자 옆에 있던 박희정 회원이 “지난 번 한미연합연습 RSOI에 관한 테마사랑방은 내용이 참 어려웠어요. 쉽게 잘 설명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회원 상대로 강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다.

인터뷰가 끝날 때 쯤 박희정 회원은 평통사 사무처 일꾼들에게 선물로 비즈 핸드폰 고리를 스무 개 넘게 만들어 주었다.

현장과 함께 하는 춤꾼을 꿈꾸는 백차현 회원과 하나하나 공들여 비즈 공예에 마음을 담는 박희정 회원의 그 소박하고 따뜻한 꿈이야말로 평화 통일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통사의 소중한 밑거름이다.

★부천평통사 더함분회 첫 번째 기행 나눔의집 방문과 남한산성..★

2007년 6월3일 일요일

▲강덕경 할머니님께서 그린 그림 중에 '못다 핀 꽃'을 본떠서 만든 동상

2007년 6월 3일 일요일, 경기도 퇴촌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인 것이 이 동상입니다. 나눔의 집에 도착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좀 부실해보였지만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분회원들이 정성스레 만든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동영상 보고 있는 회원들

나눔의집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힘들 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워 오시며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게 되기까지의 시간들을 동영상으로 배웠습니다. 할머니 말씀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해 달라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다시는 나라를 잃는 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 민석, 강, 민승이(왼쪽부터) 넷이 앉아서...포즈가 참 예쁘네요. 귀여운 부천 회원의 2세들

▲여기는 역사관입니다. 김효철 회원이 오랜만에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그리신 그림, 생전에 쓰시던 유품, 일본정부에서 정책으로 관여하였다고 적힌 문헌들, 실재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위안소, 그때 지급했다던 화폐. 물론 전쟁이 끝나고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지만요. 그리고 수많은 위안소의 위치도를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들... 이는 할머니들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는 수요집회 모습을 탄 모형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이 공개 사과할 것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벌써 800회가 가까워 온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 보면서 이후 할머니들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회원들이 냇가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물이 시원하다 더군요. 하지만 물이 깨끗하지는 않아서 오래 놀지는 못했습니다.

▲나눔의집에서 전체 사진. 배경은 '못다핀꽃' 동상 앞에서...

인천

효순미션 5주기 추모!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2007 평화기행

"우리가 진정으로 효순이 미션을 추모한다는 것은
바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막아내는 것...."

효순이 미션이가 미군장갑차에 처참하게 깔려 희생당한지 5주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살인미군 또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반
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전쟁연습장인 무건리 훈련장은 확장될 예정.

지난 5월 26일, 효순,미션 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두 여중생을 추모한다는 것
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한 기행을 다녀왔다. 인천평통사 회원들과 가족, 인천공
대 학생등 42명이 참여하였다.

▲ 여중생 추모비 앞에서 '효순아 미션아 사랑한다!'

버스 안에서는 유정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행 취지 설명 후, 참가자 소개를 진행하였다.

먼저 인천평통사 염성태 공동대표는 “5년 전 효순이와 미션을 치여죽인 미군들의 만행
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다시 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어 매일같이 타오르는 촛불
은 미국을 반대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다음으로 인천공대 06학번 김두원 학생은 “공
대학생회에서 효순이 미션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인터넷 검색 수준에서만 알아보았
다. 그러나, 직접 기행에 참가하여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두 여중생의 억울함
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의미있는 기행을 다녀오고 싶다” 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지나 오전 11시 50분쯤 파주시 무건리 ‘도자기마을’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80년대 당시, 미군훈련장 건설 때문에 직천리에서 오현리로 이주한 직천초등학교 건물이었
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군훈련장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고 초등학교까
지 폐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폐교로 몰락한 건물을 도자기공예를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이곳의 장소를 빌려 이용남 사진작가의 사진해설
을 들었다.

▲ 무건리와 효순, 미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사진작가 이용남선생님

이용남 작가는 먼저 무건리를 포함한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의 사진들을 보
여 주며 파주지역 미군훈련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산 아래 논, 밭이 있는 일대에서 포탄
이 폭발하는 모습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만연하고 있는 훈련의 폭력성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용남 작가의 사진 속에는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모두들 논, 밭에 설치된 미군들의 대인지뢰에 의한 피해였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인지뢰매설도 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군의 피해는 사람에게만 전가되지 않았다. 자장리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탱크들의 소음피해는 인근의 젖소들에게 전가되어 폐사되는 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가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잦은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무건리 주변 마을의 일상사라는 것.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과 함께 이용남 작가는 1988년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을 미군차량에 의해 잃게 된 정현수씨의 사진과 2002년 미군트랙터에 깔려 살해된 박승주의 딸 박혜미 어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정현수씨의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먹기 위해 길가에 나갔다가 미군차량에 치였어요. 당시 사고발생 후 1시간이 지나 정현수씨가 달려왔을 때, 미군이 흰 수건으로 덮어둔 아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 병원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이의 생명보다 상관의 지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놈들이 바로 미군들입니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은지 세달이 지나 무건리에서 또 한번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박승주씨의 사건이죠. 사진에 나오는 어린이는 박승주씨의 딸 혜미인데, 평소에는 잘 울지도 않던 애가 아버지의 시신을 하관하는 날 눈꼬리를 잔뜩 치세웁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지, 열심히 싸웠지만 힘이 부족했더라든지....."

마지막으로 이용남 작가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끝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효순이, 미선이 5주기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무건리에 훈련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 하시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버스로 1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병준 무건리대책위원장의 택스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2시쯤 무건리훈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버스가 직천리로 접어드니 훈련장 곳곳에서는 미군들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군탱크와 장갑차, 군용트럭들이 즐비하게 도열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차하여 평통사 정동석 국장의 무건리훈련장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 두 여중생을 죽인 미군장갑차도 이곳 무건리에서 훈련을 하고 가던 길이었다.

정동석 국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과 같은 곳에서 주민들은 마을행사를 진행하는데, 미군들은 주민들의 생활과는 무관하게 탱크를 몰고 훈련을 진행했다. 6-7살 먹은 아이들을

뛰노는 길거리에 탱크를 몰고 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훈련장 주변의 백로 서식지에 대한 소개와 미군들의 폭격으로 파헤쳐진 산 등성이를 소개해주었다. 정동석 국장의 설명에 이어, 기행에 함께 해주신 주병준 대책위원장께서는 “무건리 주민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100만평으로의 훈련장 확장을 막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평통사에서도 무건리의 억울한 상황을 전국적으로 알려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발언하였다.

▲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병준대책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훈련장에 대한 해설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효순이, 미선이의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효촌2리 마을 어귀에 내린 우리들은 사고현장까지 10분 정도 걸어갔다. 생각보다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정동석 국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정동석 국장은 “미군들이 장갑차를 몰고오며 왼쪽에 있는 운전자는 커브를 돌며 충분히 효순이와 미선이를 볼 수 있었다. 마주오는 장갑차에서도 엄지손가락으로 길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두 여중생을 못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라고 미군의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5년전 그날의 기억'을 또울리며 우리는 효순이 미선이가 걸었던 길을 걸었다.
무건리 주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한 인도는 아직도 깔려지지 않고 있는데....
여중생 사고현장 몇미터 구간만 인도가 깔려 있었다.'

설명을 모두 듣고 우리는 미2사단에서 세운 여중생 추모비 앞에 모여 간략한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일동 묵념을 진행하고서 참가자들은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편지를 쓰는 동안, 추모비 뒤에다 5주기 기념 식수를 심었다.

편지를 다 쓰고 몇몇 참가자들은 편지내용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었다.

인천공대 07학번 정서진 학생은 “이제서야 이런 큰 문제를 알아가게 되었지만, 너희를 생각하며 좀더 많이 배우고 힘닿는 데까지 싸워 더 이상 너희같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게 더 관심갖고 해결해 나아가도록 할게.”라고 낭독하였다. 그리고 인천평통사 한연숙 회원은 편지를 낭독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직접 읽지 못하여 유정섭 사무국장이 대신 낭독하였다.

▲ 여중생 추모비 앞에서 '효순아 미선아 사랑한다!'

“효순아! 미선아! 너희가 미군에 의해 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 돼서야 추모비 앞에 처음 서게 됐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조금이나마 느껴본다. 너희가 사고가 나던 때와 지금 현재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미군 장갑차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걸 보니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의 투쟁을 통해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오리라 믿으며...”

-추모비 앞에서 2007. 5. 26 한연숙

“우리 친구 효순아! 미선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거라 믿어....

이렇게 이제서야 이런 큰 문제를 알아가게 되었지만 너희를 생각하며 좀더 많이 배우고 힘닿는데 까지 싸워 더 이상 같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게 더 관심갖고 해결해 나아가도록 할게! 미안한 우리 친구 효순이 미선이에게

- 친구 서진이가

몇몇 참가자들의 편지 낭독을 마치고, 우리는 기념식수 앞에 꽃을 헌화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여중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은 적었지만, 참가자 각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슴에 꼭꼭 새기는 심정으로 추모의 마음을 담아 헌화하는 것 같았다.

▲ 효순아~미선아~ 자주와 평화의 별이되어 만인의 머리에 빛나렴!"

이렇게 전체 추모기행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4시를 조금 넘어 다시 버스에 올라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차 안에서 참가자들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었다. 오늘의 뜻깊은 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했다. 효순이, 미선이와 같은 사고를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미군없는 평화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 효순,미선이를 죽인 미군이 민중들의 힘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세운 추모비에 어느 참가자가 이 글을 새겨 놓았다. "용서할 수 없다."서울평통사 소식

- 모임보고 -

여행모임 '길섶'

4월 13일에 모임을 한 후, 15일에 허세욱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과 삼우제로 길모임을 잡지 못하다가 5월 11일에야 모임을 했어요. 이미 4월 모임에서 5월 18~19일에 단합을 위한 수련회를 가기로 해서 그 준비를 하려고 만났지요. 부천 신정길 대표님이 홍천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골집을 주선해주셔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지요. 11일 모임에서 수련회 준비를 어찌나 거하게(먹거리를 중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련회 갈 즈음에 이윤영 회원의 아버님 건강상태가 다시 악화되어서 수련회는 무기한 연기했지요.

다행히 이윤영 회원의 아버님 건강상태는 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윤영 회원이 다리에 물혹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6월 말에 수술을 할 예정이고, 3~4일 정도 입원하고, 두 주 정도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답니다.

장윤지 대표는 9월에 출산 예정인데 지금 다리도 많이 붓고 좀 힘들어 합니다. 운영일 회원은 오랜 지킴이 생활을 접고 중국으로 훌쩍 여행을 다녀온 후 되는 시간에 서울 평통사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섶은 24일(일)에 여성분회와 함께 용산기지 둘러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둘러보기 끝나고 모임을 하면서 이름에 걸맞게 여행 계획을 잡아보려 합니다. 길섶에서 가는 여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모임 '노뚝돌'

여성분회는 5월30일(수)과 6월13일(수) 두 번의 정기 모임을 했습니다.

5월30일에는 본부의 미군문제팀 이형수 국장이 함께 해서 서울 평통사의 올해 중점 사업인 용산미군기지 관련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기지 둘러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월24일 여성분회원들과 함께 용산기지 둘러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6월2일 허세욱 열사 49재에 장남희, 박희정, 남미영회원이 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6월13일 모임에서는 그동안 어머님 병환으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 김은아 회원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에 모시고 있답니다. 그래도 본인의 몸이 많이 좋아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박희정 회원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초기라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치료 받고 조심해야 한답니다.

지안나 회원이 7월 1일에 법무사 시험을 봅니다. 첫 번 시험이라 본인은 그리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회는 앞으로 모임 때마다 회원들의 교양을 위한 내용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테마사랑방과 평화군축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할 것이고요. 7월 모임은 7월 4일(수)에 있습니다.

영화모임

기쁜소식 먼저 전합니다. 영화모임에 새내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삼십대 초반의 꽃미남 총각

이고 중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재 님이 영화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대형 스크린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지 한 장을 벽에 붙여 좀 없이 영화를 봤는데요. 지난번 영화모임에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하나둘씩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모임은 두 번 진행하였습니다. 우리학교와 ‘노먼스랜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학교 영화에 대해 짧막하게 소개합니다. 우리학교는 일본 조선족 해방직후 재일 조선인 1세들은 일본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자비로 책상과 의자를 사들여 버려진 공장에 터를 잡아 ‘조선학교’ = ‘우리학교’를 세웠습니다. 처음 540여 개가 넘던 학교는 일본 우익세력의 탄압 속에 이제 80여 개의 학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명준 감독은 ‘흑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의 교원, 학생들과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일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민족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불만만 영화로 강추합니다.

노동분회

이번모임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80년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어두운 카페에서 동식,현규,재훈,문희는 평통사에서 한참 투쟁중인 전쟁예비비축물자(WRSA) 종료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 WRSA폐기 법안에 따라 한국에 비치되어 있는 미국탄약을 미국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탄약 처리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 하는 WRSA 종료협상에 대해 분회원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미국은 처리비용으로 운반비와 폐기비용을 합쳐 약 1조 3천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처리비용을 한국이 댈 경우 한국은 최소 6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한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미국지원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서로들 비용을 예측하다보니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누군가의 외침으로 분회원들의 상상의 날개는 꺾였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은 허세욱 열사의 49재가 있어 따로 모임은 못할 것 같고, 동식의 집들이로 모임을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실 아닌 카페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썩 괜찮았습니다.

다른 분회도 한번 시도해 보심이 어떨까요?

- 주요일정 -

여행모임 ‘길쌈’에서 7월 14일(토)에 강화도의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이 이뤄졌던 곳으로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9차 테마사랑방

6월 27일(수) 저녁 8시, 향린교회에서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위협 현주소와 평화조약과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19차 테마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이 날 테마사랑방은 서울 평통사와 명동, 강남, 들꽃향린교회와 월곡교회가 함께 주최하였고,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강연에서 "급변하는 북미관계에 따라 너도 나도 평화체제와 평화조약을 이야기 하면서 한미동맹의 유지·강화, 또는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전쟁위협의 장본인이 미국이고, 그 물적 토대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평화체제의 전제는 주한미군의 철군, 한미동맹의 폐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 서울 평통사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알립니다]

7/17 들모임

서울 평통사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울창한 숲으로 들모임을 하려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 ; 과천 수목원

자세한 사항은 서울 평통사 홈페이지(<http://spark946.org/bugsboard/region.html>)를 참조해주세요.

부천평통사 소식

- 5/26 평택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 마련 일일주점 뜨겁고 치열했던 투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평택투쟁 과정에서 생겨난 벌금들이 그 증거인 셈이죠.
부천 지역에서도 평택투쟁으로 인한 벌금이 2천만 원이 넘게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부천민중연대에서 일일주점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벌금만큼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썼다는 것에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6/3 나눔의 집 방문
(관련 기사를 보세요)

→ 관련기사 : 더함분회 첫 번째 기행 '나눔의 집' 방문

→ 관련글 : 첫번째 기행 '나눔의 집' 방문[더함분회]

- 6/10 610항쟁 20주년, 615 7주년 기념 마라톤대회
6월 10일, 부천 시청 잔디광장, 그날은 대단했습니다.
하늘에서 퍼붓는 햇볕도, 610항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들의 얼굴표정도, 615공동선언의 의미대로 통일을 이루자는 열정을 지니고 나선 사람도, 모두 모두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615기념 마라톤을 진행하였답니다.

- 광고

* 7/7 차별철폐 대행진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부천 만들기”
제4회 차별철폐대행진 작은 문화제
장소 : 시청 잔디광장 및 차없는 거리
시간 : 저녁 7시

* 7/22 야유회
1년에 한번 무더운 여름이면 회원들과 가족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천으로 1박2일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8월에 금강산 기행에 예정되어 7월로 일정을 당겼답니다.
장소 : 축령산 휴양림
언제 : 7월 22일 오전 8시 부천평통사 사무실 앞
참가비는 답사를 다녀와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5월-6월 활동보고

117주년 세계노동절 (5월 1일)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이후, 파리회의에서 이날을 '노동자들의 단결의 날'로 정한지 117년이 지났다. 117주년 노동절을 기념하여 '허세욱열사 정신계신! 한미FTA 타결 무효! 미국반대!', '산별 교섭 실현! 산별 교섭 법제화!', '비정규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등 7개의 내용으로

▲ 온몸으로 8박자 구호를 외치고 있는 화물노동자 김원식회원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거리행진에 김원식 회원은 “투쟁은 즐겁게 해야하고, 자신이 꼭 한번 지휘를 해보고 싶었다”며 ‘8박자 구호’, ‘홀라송’등을 외치며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다. 함께했던 주변 동지들과 시민들은 평통사의 대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행진 코스가 너무 짧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회원들은 열심을 다해 김원식 회원을 응원해주며 함께 했다.

제2회 평화사랑방 -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5월 16일)

최근 주한미군이 국민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하고 심지어 돈놀이에 이자 탈세까지 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었다. 제2회 평화사랑방에서는 평통사 박석분교육팀장님을 모시고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우리의 실천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뜻에서부터 방위비분담금 지급의 역사적 과정과 그 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라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어려웠던 내용을 보다 쉽게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시민공원 조성! 윤인중 목사님 나무위 시위 종료 (5월 23일)

계양산 솔숲의 마음

생명, 평화 살림

윤인중, 신정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롯데의 골프장 건설에 맞서 계양산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나무위로 올라가셨던 윤인중 목

사님이 5월 23일, 나무위 시위 210일째를 마감하고 내려오셨다. 윤인중 목사님은 155일간 나무위 시위를 진행하였다. 지난 한달간 롯데측과의 협의가 있었으나 롯데측이 골프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여 진전된 내용 없이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날 나무위 시위는 마무리하지만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계산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롯데가 제출한 3차 골프장 계획안이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골프장 건설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회원모임에서는...

- 노동분회

분회 학습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라는 책을 학습했다. 아주대 정태욱 교수가 쓴 ‘평화협정과 주한유엔사령부’라는 내용을 학습했다. 분회원들은 유엔사는 현재 빈껍데기일뿐이고, 주한미군이 유엔사로 모자만 바꿔 쓰면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7월 15일 ‘회원 몸다지기 대회’를 정송호 분회장이 총괄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분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김병철 회원 어머니가 7월 1일 칠순이라고 하여 축의금을 건기로 했다.

- 통일분회-부식돌

직장일이 잘 마무리 되어 한달간 모임에 못나왔던 이은직 분회장이 다시 모임에 나왔습니다. 모든 분회원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오상훈회원은 택배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고, 정재훈 회원은 은 아파트 동자치위원장이 된 이후로, 지역사업에 한창 열중하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도 평통사에 대한 애정은 변치 않고, 신입회원 1명을 추천-가입시켜 분회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종일 회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천평통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석회원과 정유성회원은 회사일로 당분간은 분회참여가 어렵다고 하네요. 6월 모임에서는 ‘평화협정과 주한유엔사령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와 무관하게 미국의 주도에 따라 16개국이 다국적군의 형태로 결성하여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개입을 해 왔고 향후 전시작전권 반환 후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여 한반도 위기관리권한과 한국 군대를 지휘하려한다는 문제점을 짚어보며 평화협정 체결되면 유엔사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것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에 관해 토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신 이시우선생님 영치금 모금과 면회를 가기로 하였습니다.

- 여성분회-천지

분회원이 늘어나면서 몇사람이 빠져도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요순회원은 공부방일로, 김호영회원은 집안 경조사일로, 김선미회원은 셋째 아이 임신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5월에는 평통사 65호 회지에 실린 ‘오키나와와 일본에서 미군기지재편 상황과 투쟁’에 관한 글을 읽었고 효순미선 추모기행에 참여하였습니다. 6월에는 분회 야유회를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배도 타고, 인천과학박물관

에 들려 신기하고 재미난 체험도 했습니다. 텐트를 치지 못해 한참 씨름을 했는데 오수정회원의 능숙한 솜씨로 무사히 텐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구워먹는 삼겹살에 맥주 한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6월 마지막 모임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군 폐기탄약 문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청문회 소식,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국방부와 미국의 저질 코미디 같은 협상 내용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세욱열사 추모위원 모임에 함께 하였습니다. 7월 모임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관련 학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행모임

5월 20일 계양산으로 회원산행을 다녀왔습니다.

6월 인왕산 산행은 비가 온다는 말에 취소했는데...기상청의 잘못된 일기예보로 아쉽게도 산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산행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무의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평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근비 마련을 위한 ‘복분자 원액’ 판매사업>

상근자들의 밀린 상근비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복분자 원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종락회원의 누님이 직접 재배한 복분자로 올해 6월 첫 수확한 열매가 굵고 당도가 높은 품질 좋은 복분자를 숙성과정을 거쳐 즙을 낸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복분자원액'으로 원기회복 해보시면 어떨까요?

회원여러분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 포장 : 복분자 원액 1리터 (100ml씩 10팩 진공포장)
- 가격 : 20,000원(택배비 2,500원 별도)
- 주문 : 032-428-2230, 김강연 부장 010-5590-9134

<7월 행사>

- 7/10(화) 오후 7시, 제3회 평화사랑방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 7/15(일) 오후 5시, 인천대학교, 회원 몸다지기 대회
- 7/22(일) 회원산행 ‘무의도 국사봉’

대전충남평통사 소식

<5월5일, 홍성 무기장난감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행사>

△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평화의 바램을 우리나라지도에 붙이는 모습

△ 행사를 마치고 모두 모여~ 찰칵^^

<5월28일, 회원모임>

- 평화협정의 전망과 과제

: 주한미군이 영구히 주둔하고, 한미군사동맹이 강화되는 평화협정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6월14일 아산, 홍성모임>

아산의 송악교회, 그리고 외암리 마을을 다녀와서...

박석진(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매달 한 번 정도 모이는 홍성·아산모임이 6월에는 아산의 이종명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송악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산지역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반영하듯, 회원사업팀 김판태 팀장님과 정동석, 유한경 국장님 등 중앙 일꾼들도 대거 참여한 이 날 모임은 아쉽게도 아산 지역에서는 이종명 목사님과 이현태 목사, 이영석 회원밖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에서도 유요열 목사님만이 시간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송악교회는 초입과 건물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종명 목사님은 이곳의 유래와 현재 하시는 일을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80년 광주민중항쟁당시 대전에서 목원대 학생들이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이곳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일로 당시 김영주 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일이 있었다는 이곳은 마을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오리농법 등 친환경적인 경작을 하며 지역공동체 속에 파고드는 교회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던 중 홍성의 유요열 목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종명 목사님은 “오늘은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분위기 좋은 데로 모시겠다”면서 손수 차를 운전하여 교회를 나셨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는 길에 관광지도에서 언뜻 보았던 외암리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민속촌 관광지로 꾸며져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담으로 이어져 예쁜 길을 만들고 있어서 참 운치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종명 목사님이 불쑥 “참, 운치있다고 생각하죠?” 하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동성으로 마을의 경치를 마냥 칭송했는데, 목사님은 씩 웃으시더니 걸만 보고 속을 판단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곳은 양반행세하기로 유명한 예안 이씨들이 터를 잡았는데 그 위세가 하도 세어서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겁니다. 실례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불화(火)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불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양반들의 집으로만 내었다고 합니다. 그 이기심은 수 백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아서 이 지역의 이권(利權)이 있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일에는 득(得)이 되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한, 분위기 있는 곳에 도착한 일행은 연못의 한가운데 팔각정 모양으로 만든 곳에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풀벌레소리가 팔각정안으로 한아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늘 모임의 교육을 맡은 박석분 팀장님이 준비한 평화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13합의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는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통일에 중요한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세력이 추구하는 평화협정과 통일이 한미군사동맹의 확대·강화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민중운동진영이 자신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이 폐기가 전제되는 평화협정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

형식을 갖춘 교육은 아니었지만 보다 허심하게 평화협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당위성이 아니라 어떻게 대중들을 만나 나갈 것인가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이현태 목사님의 말씀은 평통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외암리 마을 모습

<6월21일, 충북 영동 미군폐탄약 재처리시설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대전법원앞>

(관련기사를 보세요)

<6월28일, 대전여민회 초청강연 - 통일, 우리가 모르는 것>

강사 : 박석분 교육팀장

* 6차운영위원회

- 7/24(화) 19시, 뽕엘의 집

안동평통사 소식

■ 5월 18일, 19일 5월 회원 행사로 다큐멘터리 "우리학교"를 상지대에서 관람했는데 연인원 600 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아진 수입금은 영화사에 60% 나머지는 민족학교에 성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 6월 1일 강석주, 박명배 회원이 방북하여 ‘개성 나무심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일곱돌 기념대축전에 김창환 회장님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표 및 대구경북본부 대표 3인에 포함되어 참가하셨습니다. 평통사 중앙과 지역 합해 6명이 참석하여 평통사가 북측과 해외에서도 활동상과 역할을 인정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6월 15일 6.15대경본부 주최로 열린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회에 배용한 운영위원 등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 6월 17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구통일마라톤대회에 평통사 깃발을 들고 김창환, 배용한, 박무식, 피재현, 한철희, 김현택, 김주철, 배주영, 조영옥, 박병한, 김인숙, 김옥희, 백설아, 피다은, 하태순, 피규진, 이상윤 등 많은 회원들 참가했습니다.

■ 6월 29일 10시 안동시청 앞에서 ‘근본적 재해대책 수립 및 우박피해 보상 촉구 안동농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한미 FTA 전면무효 대구, 경북 시도민 총 쉼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하반기에는 시민학교와 8.15대회, 회원행사, 수익사업을 근간으로 정책실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북평통사 소식

< 전북 평통사 5월, 6월 소식 >

- 월례토론모임 '공감(共感)' 5월모임 -

전북 평통사 월례토론모임 "공감" 5월모임이 27일 저녁 7시, 영천문화센터에서 약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5월모임은 군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객원교수로 재직중이신 코넬리아 선생님께서 "서독인의 눈으로 본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고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넬리아 교수는 크게 독일의 분단과정, 분단이후의 동서독간의 상황과 역사, 그리고 통일과정 및 통일의 이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코넬리아 교수는 동독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서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 독일통일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입장과 요구 등을 한반도 상황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코넬리아 교수는 몇가지 지점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로 남한의 미국과의 종속정도가 서독과는 상당히 다른다는 것, 즉 FTA나 한미동맹 등을 통해 종속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풀지 않고는 통일을 이루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독일처럼 분단되어야 할 대상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미국의 요구가 여전히 살아있고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흡수통일방식으로 진행된 독일통일이후 실질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서독인 보다는 동독인들이라는 점, 즉 서독인들은 세금을 좀더 내야하는 부담을 갖는 정도라면 동독인들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들이 해체됨에 따라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흡수통일방식보다는 연방제적인 방식의 통일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통일방식이 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북한 탈북자 문제, 통일방식의 문제, 통일의 필요성과 그 비용에 대한 문제 등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참여하였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다보니 거의 10시가 다 되어서야 모임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 효순 미션 5주기 추모 및 아파치 헬기배치 반대 군산미군기지 앞 집회 -

지난 6월 13일(수) 군산미군기지 옆 구 활주로 앞에서는 효순미션 5주기 추모 및 아파치 헬기군산미군기지 배치와 확장반대를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평통사 이세우대표를 비롯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이세우 전북 평통사 대표는 효순,미션이의 아픔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군이 이제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려고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제야 말로 모두가 떨쳐 일어나 미군들을 몰아내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기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행진을 하면서 프랑카드와 깃발을 기지주변에 부착하였고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기지확장과 아파치헬기부대 배치

가 가져올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이세우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

△ 군산공군기지에 걸은 플랑카드

△ 확장 부지에 철조망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 군산평통사(준) 김민웅 교수 초청, 군산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이야기-

지난 6월 21일 늦은 7시, 군산대사회과학대학 3층 교수세미나실에서는 군산평통사(준)에서 주최한 군산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한반도에 평화는 오는가?-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그리고 군산미군기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군산평통사준비모임 첫사업으로 진행된 김민웅 교수 초청 강연회, 장마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김민웅 교수는 강연을 통해 "주한미군과 평화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유병기 공동대표(전북평통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54명이 참석한 이 날 강연에는 전북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하여 대우자동차 조합원, 군산대 학생, 세아베스틸 조합원, 장기수 선생님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 뜨거운 강연 열기를 반영하듯 많은 질문이 있었다.대우자동차 편집부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 2007년 전북평통사 평화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카페 -

지난 6월 24일(일), 익산 영등동 크리스탈 레스토랑에서는 전북평통사 평화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카페가 열렸습니다. 익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들, 지역 목사님들과 교인들, 군산지역 목회자들과 노동자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평화카페에는 그동안 군산미군기지 투쟁 등 함께 해온 전북평통사 회원 및 후원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가했다.

△ 이 날 행사는 서빙, 주방 등 회원들의 품앗이로 진행되었다.

행사준비를 하면서 기념촬영 '찰칵'

△ 카페 시작 전, 전북평통사 회원들이 일찍 도착하여 참가를 독려하는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

< 전북 평통사 7월, 8월 소식>

- 1950년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추모제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의 무자비한 폭격에 의해 억울하게 숨져가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이땅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 일시 : 2007년 7월 11일 오후 14:00 - 16:00

@ 장소 : 익산역 광장 위령비 앞

- 6.15공동선언 7주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익산시민통일노래한마당-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나누고 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익산시민 모두가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급성알려내기 위하여 통일노래한마당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07년 7월 28일(토) 오후 6시 - 9시

@ 장 소 : 익산 중앙체육공원

- 백두산, 고구려유적지로 떠나는 중국평화역사여행 -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 2007년도 중국평화역사여행>을 엽니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숨결과 발자취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백두산, 항일민족해방운동지, 고구려유적지에서 6박 7일간 펼쳐지게 될 이번 <2007년도 중국평화역사여행>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숨결을 느껴보고 중국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 2007년 8월 5일(일) - 11일(토)(6박7일)

@ 참가대상 :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선착순 20명)

@ 참가비 : 89만원(모든 비용포함, 단 여권비와 인천공항까지 교통비는 본인부담)

@ 모집기간 : 2007년 7월 13일(토)까지

@ 참가절차 : 먼저 참가의사를 밝히고 6월말까지 여권사본 제출과 참가비 입금

@ 입금구좌 : 농협, 551-02-565190(조광수)

@ 연락처 : jbcks@hanmail.net/063-832-0018/010-4653-1838

@ 일정표 : 인천-심양-단둥-환인-집안-통화-백두산-용정-연길-심양-인천

- 영어로 평화읽기 모임 -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는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세

계적인 눈으로 우리사회와 민족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영어로 평화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 영어로 평화읽기 모임 >은 초보적인 영어회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운동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6월 3째주 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6시-9시(3개월과정)

@ 장소 : 영천문화선교센터 4층 세미나실

@ 모집인원 : 약 15명(선착순)

@ 프로그램 : 초보회화(2시간)/영어로평화읽기 및 토론(1시간이상)/뒤풀이

@ 강사 : 아가타 홈 박사(미국인/평통사 자원봉사자)

@ 참가비 : 월3만원(교재비별도)

@ 연락처 : 063-832-0018/010-4653-1838/jbcks@hanmail.net

광주전남평통사 소식

◎ 5월 회원 모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

5월 10일 늦은 6시 30분 광주 YWCA 7층 교육실에서 광주 전남평통사 5월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배종렬 의장님을 비롯해서 광주에서 장헌권 목사님, 송헌승 목사님, 김용성 목사님, 임재복 선생님이 참석을 하시고, 나주에서 김병균 목사님과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 사무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서창호 교수님과 오승주 목사님이 무안에서 전영남 농협장님, 최종률 회원님, 최병상 운영위원님, 김기옥 회원님, 오철웅 무안농민회 사무국장님, 본부에서 박석분 교육팀장님과 정동석 조직국장이 참석을 하였다.

배종렬 대표님의 진행으로 참석자들 인사가 진행되고 2007년 2차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및 공유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전남 평통사 모임 진행을 광주지역과 기타 지역을 나눠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그 연락 책임자들을 선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모임을 진행해야 많은 회원들과 주변 동료들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음을 공유하였다.

이날 교육은 본부 박석분 교육 팀장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있었다.

참석자 모두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박석분 팀장의 제안대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투쟁의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이날 참석한 안희만 나주사랑시민회 사무국장은 이런 뜻깊은 내용을 보다 대중적으로 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관련 교육을 나주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허세욱 열사 추모기금 마련을 위해 CMS를 통해 1만원씩 내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 6월 28일 회원모임 “평화협정 체결의 현황과 문제점”

6월 28일 늦은 7시 무안 서남부 채소 농협에서 광주 전남 평통사 6월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은 배종렬 의장님께서 방북을 하셔서 김병균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농사철이라 예상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병균 목사님, 전영남 조합장님, 김용성 목사님, 장관철 목사님, 박석중 목사님, 송봉섭 회원님, 김덕현 회원님, 최병상 운영위원님, 김미경 회원님 등 열 한 분의 회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다.

이날 교육은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판태 팀장의 교육이 있었다.

김판태 팀장은 <평화협정이란 무엇인지? 평화협정의 내용, 그리고 평화협정의 의미 등을 설명하고, 현재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양을 해주었다.

회원들 상당수는 내용을 좀 어려워하고, 모임 이후에 윤한봉 선생 조문이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은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김병균 목사님께서 “213 합의 이후에 평화협정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화협정 안에 대해 많이 궁금했는데 평통사에서 많은 고민에 답을 주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었다.

故윤한봉선생 장례위원회 보도자료(0628)

광주의 큰 별 지다 故윤한봉선생 빈소 풍경

‘마지막 5.18 수배자’ 故 윤한봉 선생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 조선대병원 영안실에는 고인의 삶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타계한 고인의 유해는 어젯밤 광주로 운구 되어 빈소가 차려졌고, 광주의 각계 인사들은 빠르게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분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빈소에는 1980년 5.18 이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서로 소원하게 지냈던 광주의 각계 인사들이 오랜만에 서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어제 밤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다녀갔고, 한명숙 전 총리, 손학규 전 지사가 오늘 중 조문할 예정이며, 소설가 송기숙, 조비오 신부, 이홍길 5.18기념재단이사장, 강신석 목사, 김수복, 성찬성, 정향자, 이기홍 변호사, 화가 강연균, 김국웅 사장 등 각계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빈소에는 노무현 대통령 등이 보내온 100여개의 조화들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윤정현(011-625-1742)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5월 18일 광주 지역 노회와 NCC가 공동으로 주최한 ‘5.18 민중항쟁 27주년 추모예배 ’에서 허세욱열사 관련 896,340원의 추모기금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남부모임 소식

김민웅 교수 강연회 개최

한반도에 평화는 올 것인가?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경기남부모임은 첫 대중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목) 오후 7시,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김민웅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한반도에 평화는 올 것인가?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강연에는 경기남부모임 성원들을 비롯하여 팽성주민대책위 신종원 국장, 쌍용자동차 조합원, 기아차 조합원, 전교조, 노동자의 힘 등 약 4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김민웅 교수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동북아 패권을 위한 교두보로 강요되어왔다. 그리하여 청일전쟁에서 보듯 한반도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쟁터로 사용되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해방 후에는 점령군으로 미군정이 들어서고, 현재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나 평택이 그 핵심 기지로 미군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곳으로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과 대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에 대한 적대정책과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평화체제를 말하면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결코 세계패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평택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평택이 미군에게는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지라면 우리민족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결코 미군에게 내줄 수 없는 곳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추리, 도두리에서 주민들이 쫓겨났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평택에서 미군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제국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에 제국주의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평택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투쟁에도 함께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미군과의 투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미군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 평택투쟁 또한 지역주민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 국민들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며 열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수 대표(노동자의 힘)는 "한미당국이 기만적인 평화체제를 애기하고 대선 또한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강사는 "우리도 평화체제를 애기해야 합니다.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군비증강을 꾀하지 않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주둔하지 않는 평화체제를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한미당국의 평화체제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황재순 경기남부 평통사(준) 회원은 "어떻게 평화의 문제를 노동자를 비롯한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깨닫도록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강사는 "평화가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생활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군비증강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밝히고 알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두가 평화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서 싸울 것입니다."고 답하였습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겨서야 강연이 끝났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뒤풀이에 함께 하여 소감을 함께 나누고 평택의 평화와 평통사 경기남부모임의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종필 조합원(전교조)은 "너무나 좋은 강연을 듣게 되어 기쁘다. 녹음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필기도 했습니다."며 소감을 밝혔으며

이수용 이장은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강연은 경기남부 평통사 건설을 준비하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민영환 회원은 80세가 넘으신 어머니와 부인, 아이들도 준비부터 마지막 뒤풀이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글

먼저 어려운 시대적 환경속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일하시는
범국본의 모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유일의 한국식당 [비원]을 운영하고있는 손순호(51세) 입니다.

지난 1990년 '걸프전' 개전직후 이곳에 온뒤, 이를 핑계로한 미군의 사우디주둔과, 9.11 뉴
욕공격을 빌미로한 '대테러전쟁', '미국의 이라크침공' 등 세계의 전쟁을 이곳 이슬람의 종주
국에서 겪으며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이곳 사우디는 걸프전이후의 '전비부담'과 '미군 주둔비부담', '미제무기구매'에다 장기간에
걸친 '저유가'의 사중고로 상당히 피폐해 가다가 최근의 유가상승 으로인해 경기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부분에 착안한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 지난 3월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적응과 생존에 대응하면서도 국내의 역사상황을 주시해오던 저에게 작년
이후 본격화된 현정권의 한미FTA추진과 대국민강공드라이브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동참
한 한국군의 파병, 장기주둔과 함께 노무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외면
하는 철저한 자기부정으로 비쳐졌습니다.

그 상황의 한 정점이었던 지난 4월1일 허세욱님의 분신과, 4월2일의 한미 당국자간의 협상
타결발표, 4월 15일 허세욱님의 사망, 시신빼돌리기, 유족들의 조문거부, 전격적인 화장과
산골, 유족없는 장례식과 마석묘원안치의 모든과정은 저에게 경악과 분노 절망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두달은 견딜수없는 아픔의 시간 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도로를 달리는 운전석에서, 귀가해서 늦은밤 대하는 뉴스사이트의 모니터앞
에서, 때로는 영업중인 식당에서조차도 눈물은 걸잡을수없이 솟구쳐올랐고 흐느낌은 그칠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듯이 허세욱님의 자기희생은 선행된 다른 경우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성장환경, 짧은학업, 너무도 무거운 삶의무게속에서 늦깎이로써 스스로 깨우쳐나간
자기각성의 노력들, 소망과 헌신.....

그가 고통스러운 전생애의 힘으로 간절하게 피워올린 불꽃은 남은사람들이 역사의 진보를
찾아가는 길을 밝혀주며 실의와 환멸로 식어가는 우리들 가슴속을 언제까지라도 데워주리라
고 믿습니다.

지난 통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견과 관심은 추모사업에서 '허세욱 상'의 제정과 강력한
집행노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들중의 하나가 아닌, '늠름한 민중의 표상'으로서의 뚜렷한 존재이유와 가치를 지니며 혼돈과 자기부정의 시대를 질타할수있는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끝끝내 자기 존엄성을 지켜나가며 전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정표가 될수있는, 각성의 힘이 되어주는 상. 그것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 시간적인, 금전적인 노력을 하고자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어려운 생존환경 속에서도 역사의 발전을 열망하며 조국을 주시하는 불특정 다수의 해외 교민들에 대한 홍보와 연대, 참여기회의 제공과 조직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제인 6월2일에 맞춰 귀국하려던 계획은 이곳 사정으로 어렵게 되었지만 그의 유지를 잇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은 해 가려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리야드에서.

6월 16일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며 5박6일의 일본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일정은 AWC(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가 주최한 학생 교류 활동이었다. 나는 인천 공대 학생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일정은 나리타 공항 확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산리쓰카 집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일본을 다녀온 평통사의 다른 동지들에게 ‘산리쓰카’는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다.

집회장 입구부터 사복경찰이 검문을 하고 전투경찰이 집회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집회장 분위기는 전투적 분위기였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빨간헬멧, 파란헬멧, 흰색헬멧을 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 집회 내용은 나리타공항 확장을 위해 숲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였다. 집회를 하던 중에도 나리타 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머리 위를 바로 지나가고 그 소리에 고막이 터질듯했다. 집회를 간단히 마치고 나리타 공항 확장 예정지를 행진했다. 나리타 공항 주변은 이미 사방이 높은 철판으로 둘러쳐 있었고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었다. 주변에는 발작물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모두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다고 했다.

산리쓰카 농민들은 일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FTA 체결로 농업이 죽어가고 있었다. 일본 농업의 단면을 이곳 산리쓰카에서 본 셈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나리타 공항의 활주로나 구부러져 있어서, 직선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민들의 밭과 숲이 가로 막고 있다며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이에 반대하며 산리쓰카 농민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정도로 처음에는 이해했다. 그러나, 산리쓰카의 역사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야기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리타 공항을 짓기 위해 농민들의 논과 밭, 그리고 집을 모두 강제 수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투쟁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투쟁했다고 한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일본정부가 민간공항을 짓는 것 뿐 아니라 주일미공군기지지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더 큰 공항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농민들은 공권력에 맞서 치밀하게 투쟁을 준비했고, 과정에서 몇몇의 농민들이 죽었고, 경찰도 함께 죽었다고 한다. 이로써 산리쓰카는 일본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거룩한 투쟁으로 기록된 것이다.

지금은 1농가만이 남아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산리쓰카 농민 ‘시마무라 쇼지’씨를 만나러 갔다. 아들과 함께 닭,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시마무라 쇼지씨를 만났다. 만나는 동안에도 3~4분마다 나리타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 다녔다. 한국에 매항리 폭격장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듯이...

시마무라 쇼지씨는 40여년의 산리쓰카 투쟁에서 많이 지쳐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자신은 산리쓰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산리쓰카 투쟁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야기 했다.

산리쯔카 투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산리쯔카 지킴이’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다. 산리쯔카를 거치지 않은 일본의 활동가는 없으며,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리쯔카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의 일본 운동을 낳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40여년의 투쟁을 통해 슬픈 현실도 있었다. 바로 내부의 분열인 것이다. 처음 산리쯔카 집회에 참석했을 때 보았던 흰 헬멧(중핵파), 파랑 헬멧(해방파), 빨강 헬멧(통일위원회)등과 같이 내부는 많은 분열을 겪었다. 산리쯔카 투쟁이 낳았던 또 하나의 아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파가 다른 투쟁에서는 서로 잘 화합하지 못하지만 ‘반기지 활동’과 ‘산리쯔카 투쟁’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투쟁한다고 한다. 평택미군기지 투쟁을 할 때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하나가 되어 투쟁했듯이 말이다.

우리는 그날 저녁 산리쯔카 지킴이들과 함께 교류회를 가졌다. 그곳에는 특별한 두 분이 오셨다. 한 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일본 천황제 반대 투쟁을 하시는 스즈키 할아버지고, 다른 한 분은 산리쯔카 투쟁을 40년간 이끌어 오시는 80세된 사무국장이었다.

우리를 보시자마자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달라시며 한국을 식민지화 시켰던 것에 대한 사죄를 먼저 하셨다. 8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신 채로 우리에게 사죄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무국장님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셨다. “인생은 로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리쯔카 투쟁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작은 불은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것. 저마다 투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계속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리쯔카 투쟁은 일본 진보운동의 산실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라며 우리의 눈을 바라보셨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리랑’ 노래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 나는 아리랑을 구슬프게 한 곡조 뽑았다. 그리고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간 소주를 할아버지에게 따라 댔다. 조금만 따라 드리라는 산리쯔카 지킴이 말대로 조금만 드렸다. 한잔을 들이키시더니 눈가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농담도 하시고, 노래를 해야겠다고 하시며 마이크를 놓치 않으셨다. 통역을 하였던 사코다 선생님은 지킴이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무국장님이 저렇게 기분 좋아 하시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면서 이날의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산리쯔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후에 AWC교토, 고베 등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다.

내가 발제한 것은 한반도에 북미간에 평화협정의 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평화의 분위기가 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한미동맹 재편으로 인해 또 하나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 특히 한반도를 전쟁연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맞서 한국민중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발제를 했다. 그 중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용남 선생님이 주신 사진자료 중에 1988년 훈련하던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 한 어린이의 아버지가 장갑차를 막아서는 사진을 설명했다. 그러자 통역을 하시던 사코다 선생님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집회가 끝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사코다 선생님에게 왜 그 사진을 설명하는데 울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자, 사코다 선생님은 자신에게도 4살된 아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신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나는 외세에 의한 민중들의 감정은 이곳에서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일본의 AWC동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일본 동지들은 한국의 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는 등 자신

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희생해 가며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활동가들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은 더욱더 깊은 연관 속에서 함께 맞물려 갈 것이다. 반기지 평화운동을 통해 더욱더 연대의 틀을 높여 미군기지 없는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미군기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AWC동지들과 함께 노력해야겠다.



▲ 산리쓰카 집회 후 확장예정지역을 행진하고 있다.(맨 우측은 통역을 해주신 사코다 동지)